

/제/32회/전/국/도/서/관/대/회/제/2/분/과/기/조/연/설/

##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실제와 도서관평가문제

김진수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 목 차

1. 서 언
2.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실제
3. 도서관 관련 평가항목의 문제
4. 결론 및 제언

### 1. 서 언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앞두고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사회의 최우선 당면과제는 대학평가 사업이다.

특히 1991년부터 대학평가제도가 대학평가인정제로 전환되어, 평가인정의 결과를 사회에 공표하고, 이 인정의 결과는 정부기관, 기업체, 재단 및 사회가 대학에 대한 직접, 간접의 행정, 재정 지원정책과 혜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와 기준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대학사회는 대학평가에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대학평가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대학평가를 통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대학교육의 탁월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면서 자율적인 대학평가제를 본격 도입하여 시행해 왔다. 1992년부터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를 대상으로 평가인정제에 의한 대학평가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가 공표됨에 따라, 새로운 평가제도에 대한 대학인의 반응은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인식과 더불어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평가자체에 대한 반응은 “대학평가인정제가

대학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대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라는 등의 긍정적인 견해와 “평가 대상 학과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투자로 다른 학과의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부정적인 견해로 나타났으나 평가인정제에 대한 종합적인 반응은 대학발전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로 정착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평가대상 영역에 따라 평가기준과 방법이 전문적으로 명확히 설정되지 못하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는 물론, 평가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당사자 간의 그 해석과 적용이 서로 상반 될 수 있고 엉뚱한 평가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93년 학과평가결과가 공표된후 일부 대학들이 평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도 평가기준과 방법의 합리성 결여와 이의 상반된 해석에서 비롯된 예 일 것이다.

'94년 9월 23일 부터 중앙일보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자료와 협조를 받아 10대 평가 지표를 선정하여 전국 131개 대학을 종합평가 하여 발표하였다.

그 중 도서관전산화 평가에 대하여 우리 도서관인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평가 시도 자체는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전산화의 기준이 모호하여 도서관의 전문업무가 잘못 이해되고 평가되는데 대하여 1994년부터 시행되는 대학종합평가를 앞두고 심히 우려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이 촉구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란 현재의 대학도서관을 높이 평가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대학도서관은 그 대학의 심장” 이라는 말이 부끄럽게도 한

날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취급되어 대학 현장의 맨 끝자리에 서있는 현실 그대로를 평가하되, 대학평가를 통해서 대학도서관의 존재가 제대로 인식되어 대학 현장의 맨 앞자리로 돌아와 대학의 심장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평가 해 달라는 부탁이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바탕으로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이해와 대학종합평가 기준 항목 중 도서관 관련 항목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여 대학도서관 기능 제고를 위한 앞으로의 평가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 2.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실제

우리나라의 대학평가제도는 지난 반세기의 대학 역사에서 몇 차례의 변천을 해왔다. 제도의 시대적 변천은 1945-60년에 이르는 제도적 개혁을 위한 감사적 평가기, 1970년대의 실험대학 평가기, 80년대의 대학자율평가기로 이어지면서 각 시대의 독특한 갈등을 수렴하기 위한 평가 활용이 수행 되었다.

90년대 들어 와서, 지금까지의 대학평가제도는 대학의 이념 실현이나 학문의 수월성 및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 하는데 별로 뚜렷한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인식과 국제교육시장의 개방 등 총체적인 사회변화와 무한경쟁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상황을 맞아 당면한 과제중 하나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고, 질을 제고 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개별 대학들이 스스로 자기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케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로 마련한 것이 현행대학평가인정제이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하는 제

도”이며 대학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학과를 평가 대상으로 하는 학과평가제로 구분된다. 이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회가 대학평가에 관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대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대학평가인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 중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을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학부는 ① 교육 ② 연구 ③ 사회봉사 ④ 교수 ⑤ 시설, 설비 ⑥ 재정 경영의 6개 영역에 걸쳐 평가하고, 대학원은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목적은 “대학교육의 수월성, 효율성, 책임성, 자율성, 협동성을 제고” 하고, 아울러 대학재정의 확충을 통하여 대학을 발전 시키는데 있다.

종합평가인정제와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취지는 대학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대학교육의 수월성과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받는 데 있는 것이지,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베푸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가인정의 결과,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정된 대학이 정부기관, 재단, 기업체, 사회로부터 직접 간접의 지원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대학의 발전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자극하고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종합평가인정제로 인하여 대학에 대한 외부의 차등지원이 강화되므로써 대학간 교육 여건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영구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행정당국은 우수한 대학에는 보상적 지원이, 또 낙후된 대학에는 그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요 기관별 평가결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대학에 대한 보조금, 연구비, 장학금 등 재정적지원과 학생정원의 증감 및 조정, 학과의 신설 및 폐지, 학생 선발 절차 등 대학에 대한 자율권 부여에 중요한 판단자료와 기준으로 활용 할 것이며, 기업체와 민간 단체는 사원 채용을 위한 전형, 연구용역 수탁자의 결정, 장학금 수혜자의 선정, 공동연구 조직의 구성들에 평가 결과를 활용 할 것이다.

고등학교 교사나 학부모 및 학생은 학과 또는 대학 선택에 평가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대학은 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대학의 혁신 프로그램의 구상, 예산편성, 인력확보계획수립,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 부여 등이 가능 할 것이다.

### 3. 도서관 관련 평가항목의 문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경우, 누가 그 기준을 이용하는가? 왜 그들은 그 기준을 이용하는가? 평가 이해 당사자 간에 그 해석과 적용이 일치 할 때 평가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E.Corbett는 “대학도서관의 목적은 대학의 목적과 같다”고 하였다.

대학종합평가의 목적이 “대학교육의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협동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재정의 확충을 통하여 대학을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한다면, 대학도서관의 평가목적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겠다.

즉, 대학도서관의 구성요소인 사서, 장서, 시설과 전산화 등이 도서관기능의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협동성을 제고하여 시대개념에 맞게 이용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투자는 적절히 이루

어지고 있는가를 평가 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현행 대학종합평가 기준 항목중 도서관관련 평가항목은 대학평가 6개영역의 100항목중 주로 시설 설비 영역에 도서확보의 적절성(8점), 열람좌석의 확보(4점), 학술지 구독종수(4점), 정보처리의 체계구축(도서관 전산화)(4점)과 재정 경영 영역에서 도서구입비의 규모(4점) 등 5가지 항목으로 각각 설정되어 있다.

도서관 관련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24점으로 대학평가 기준 총점수 500점의 4.8%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평가인정제의 평가 기준을 처음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관계 전문가 협의회, 설문조사, 공청회 등 많은 노력과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믿는다. 대학의 전체영역을 평가하는데 따른 영역간의 조화, 평가 기술상의 제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전제하면서 도서관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평가항목이 도서관의 3대 요소인 사서, 장서, 시설과 도서관 운영 전반을 질적, 양적으로 골고루 평가 할 수 있도록 마련되지 못하고, 장서, 열람석, 예산 등 양적 평가에 치중되어 질적평가가 결여 되어있다.

질적인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는 전문사서의 확보, 봉사의 질, 이용자 중심의 체제를 구현 할 수 있는 도서관전산화에 대한 평가 기준이 요청 된다.

질적인 평가와 양적인 평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자칫 평가를 위한 숫자 채우기 확보계획으로 질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다.

그 실증적 예로, 정부에서는 최근들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증대하여 도서관의 부족한 장서확보와 미진한 전산화업무 추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 꼭 다

행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장서의 양적 확보에는 큰 혜택을 누리면서도 도서관구입예산의 증가에 비례한 합리적인 자료의 선정, 신속한 정리, 효율적인 봉사제공 등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증원과 전산화 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채 창고에 쌓이게 되어 이용자를 위해 존재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수행은 물론, 기본적인 정리업무조차도 제대로 감당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둘째, 도서관 평가 5개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총평가 항목의 24/500이다. 이는 대학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에 비하여 너무 적은 비율인 반면, 이를 5개 항목의 내용을 평가 기준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각 대학이 평가 경쟁에서 재정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점수 위주로 운용 한다면 대학 평가로 인해서 도서관의 현실이 더욱 악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 4. 결론 및 제언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다.” “대학도서관의 질과 수준은 그 대학을 평가하는 척도”라는 선언적 외침이 대학 현장사서들에게는 이미 진부하고 공허한 복음으로 들려 올 뿐이라는 냉소적인 현실은 국가장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정보와 개방화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 대학의 현장에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도서관을 제자리에 세우는 일은 대학의 시급한 과제이다.

대학도서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대학의 책임

이며 의무이다. 이는 대학종합평가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문제이며, 대학종합평가가 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대학경영자들은 대학도서관을 한낱 대학의 부속기관으로서 대학 인가조건의 한 시설쯤으로 여겨왔고, 필요할 때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외치지만, 실제대학의 행·재정 집행과정에서는 언제나 맨 뒷자리에 소외시켜왔다.

대학도서관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일은 대학당국과 대학구성원들의 도서관에 대한 절실한 필요인식의 전환과 이의 실현 의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실현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우리 도서관인들은, 앞으로 시행될 대학종합평가 인정제가 대학당국으로 하여금 대학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의 실현의지를 유발하여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제도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관계기관의 협조와 아울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정부당국은 대학도서관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① 현행 재정지원을 계속하되, 2학기 중반에 영달되는 국고지원을 년 초에 배정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강구하고, ②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교육정보전산망의 조기실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화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재정 지원체제 마련과 ③ 대학도서관의 법정기준을 양적·질적으로 균형있게 유도할수 있도록 점차 강화 할것

2. 대학당국은 도서관의 발전없이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절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자료확보, 전문인력확충, 전산화추진 등 도

서관 운영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극적이었던 행정·재정지원을 우선 중점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종합평가를 통해서 대학도서관이 제위상을 찾을 수 있는 기능제고는 물론, 대학으로 하여금 스스로 도서관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유도할 수 있도록 ① 대학종합평가의 도서관 관련 항목중 전문사서의 확보, 봉사의 수단과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② 도서관관련 항목의 가중치를 높이거나, ③ 필수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④ 당장의 평가 기준은 현행 관계법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기준을 올려 나가야 한다고 본다. ⑤ 재정 여건이 다른 국립과 사립대학을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4. 한국도서관협회는 국립·사립대학 도서관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가져 ① 대학도서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도구의 개발과 협동체제 구축에 보다 적극성을 가져 정보공유의 시기를 앞당기고, ②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강구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직 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5. 사서들은 대학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봉사하는 전문인으로서, 권익의 주장에 앞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는지 스스로 묻고, 도서관을 발전시키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정보화시대의 정보전달자로서 전문지식의 함양과 새로운 기법의 개발에 노력하여 대학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